

이덕일의 ‘역사의 창’



임금과 측근들의 처신

조선의 태종은 재위 2년(1402) 7월 3일, 풍저창(豊儲倉) 책임자인 풍저창 사(使) 김명윤(金明允)을 순위부 감옥에 가두었다. 풍저창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쌀 등의 곡물 등을 관장하는 부서였다. 태종이 김명윤을 옥에 가둔 이유는 풍저창 소속의 사령(使令 : 하졸)이 죄가 있다는 이유로 쌀 3석(石)으로 눌러 놓아 거의 죽을 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태종은 이 사실을 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의 보고를 받고 알았다. 그런데 태종은 김명윤을 옥에 가둔 후 “내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랫사람들이 내가 참소(讒訴 : 남의 죄를 고해 바침)를 듣는다고 할까봐 두려워서 보고하는 자가 있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했다.

자신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먼저 말하면 아랫사람들이 임금 이 누군가로부터 개인적 참소를 듣고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할까 두려워 보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만큼

임금의 거동(임금의 나들이)을 무겁게 생각했다는 뜻이고 공적 질서를 중시했다는 뜻이다.

동양 유교사회에서 선비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했는데 이른바 ‘군자 삼락(三樂)’이다. 맹자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부모가 다 살아 계시고 형제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사람을 굽어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맹자, 진심(盡心)상>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는 “천하에 왕 노릇 하는 것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다. 왕 노릇은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하에 왕 노릇 하는 것도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에 들지 않는데 그 아래 관직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은 임금에게도 유자(儒者)로서 도덕적 충고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개국 3등공신 안평부원군 이서(李師)의 ‘출기’(岫記)에 이런 기록이 보인다. 하루는 이서가 임금을 만났는데, 어좌(御座)에 황색 비단으로 만든 황룡요(黃綾褙)가 깔려 있었다. 이서는 이를 보고, “신이 요의 빗갈을 보니 전하께서 사용하실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태종은 이 충고를 듣고 부끄러워서 사례했다고 전한다.(태종실록 10년 9월 9일)

천하의 왕 노릇 하는 임금에게 사치는 즐거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임금과 벼슬아치는 하늘을 대신해 백성들을 다스리므로 검소해야 한다는 가치관이다. 그래야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된다.

고려의 충선왕은 원나라 수도 연경(燕京 : 북경)에 머물면서 정사는 전지를 내려 처리했다. 그러자 충선왕의 측근 권한공(權漢功)이 연경 자택에서 몇몇 측근들과 함께 관직을 팔아먹어 원성이 자자했다. 원나라에서 충선왕을 토벌으로 유배 보내고 충숙왕을 즉위시켰다.

충숙왕은 권한공 등을 체포해 이문소(理問所)에서 국문하라고 명했다. 이에 권한공은 뒷간 구멍으로 도망치다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권한공은 곤장을 맞은 후 먼 섬으로 유배가게 되었는데, 이제현의 부친인 임해군(臨海君) 이진이 성문 밖에서 전송했다. 이에 권한공은 “천하가 비록 넓지만 내 한 몸 감출 곳이 없네”라고 하소연했다. 이진이 “뒷간 구멍이 좋지 않은가”라고 조아붙이자 권한공이 크게 부끄러웠다고 한다.(고려사, 권한공 열전)

충선왕의 결에서 온갖 권세를 누리던 권한공이나 현재의 국정 농단 주범들은 한 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나라 권력을 한 손에 쥔 듯 온갖 위세를 떨치던 자들이 국회사 현재의 출두 명령에는 약속이나 한 듯 행방불명인 것은 권한공이 뒷간 구멍으로 도망친 것과 같다. 그나마 이들은 ‘뒷간 구멍이 좋지 않은가’라는 말을 듣는다 해도 부끄러움을 모를 것 같다. 대한민국이 비국이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우리 아이 사시일까



김 대 현
조선대병원 안과 교수

서는 외사시가 많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에서는 내사시가 많다. 외사시는 보통 간헐 외사시의 형태로 발생해서 진행하면 항상 외사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어린 소아에서 처음 나타난다. 보통 2세에서 4세 사이에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내사시는 외사시보다 좀 더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영아내사시는 생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외사시 중에서도 눈이 가끔 밖으로 틀어지는 간헐외사시가 많다. 앞서 말했듯이 간헐외사시는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사시가 있어도 사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인은 쿠타가 낮으면서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많고 앞트임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령 눈이 밖으로 틀어져 있다고 해도 눈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의 위치가 틀어져 있는지 알기 어렵다. 즉 아이들이 성장하여 눈이 커지고 쿠타가 높아지고 나서야 사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문제는 사시는 어릴 때 조기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주야 성인이 돼서 문제

가 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근시, 원시, 난시 및 약시 등이 동반돼 있으면 이를 교정해줘야 하는데 이들 질환들은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교정을 해주야 효과가 좋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역시 사시를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 후에 수술을 해야 결과가 좋다.

사시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시를 어릴 때 교정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입체시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다. 요즘 같은 3D 시대에 꼭 필요한 기능이 입체시 기능인데, 어릴 때 사시가 있으면 세상을 3차원적으로 보는 능력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 또한 독서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볼 때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책이나 컴퓨터의 글씨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한 후 사시가 심해지고 복시가 발생한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용적으로도 사시가 있는 사

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상대방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즉 사시를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사시는 어릴 때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관심이라고 생각된다. 아이들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주 관찰해야 눈의 위치가 올바른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세밀한 부모의 관심과 관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최소한 2세에서 3세가 되면 병원에 데려가 사시가 있는지 검사를 시행하고 기타 동반된 약시나 근시, 원시 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특히 우리아이들이 좋은 눈을 가지고 평생 좋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社 說

여수 수산시장 최대한 빨리 문 열 수 있도록

설(28일) 명절을 앞두고 대형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조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기간 단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인들이 점포 화재 등의 손실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손해사정에만 최소 20일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조기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철현 여수 시장은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기간 단축 문제가 정부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수산시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20억 원이 가입돼 있고 점포별 개별 보험에도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애초 소방서가 추산한 5억 2천여 만 원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점상인들은 점포뿐만 아니라 판매대에 진열하거나 설 대목

을 앞두고 창고 등에 보관중인 수산물이 상당해 피해액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화재가 발생한 시장은 KTX개통 이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하루 평균 2천~3천명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여서 피해 시설이 복구되기 전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피해액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인들의 경우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아 하루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정 기간 단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장 감식과 보험 피해 사정이 끝나는 대로 잔해를 처리와 피해 복구를 위한 전기 공급을 서두르는 한편 임시 판매장도 차질 없이 개설해 이들이 설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점포의 경우는 재산과 영업 피해 등이 더 많을 것인 만큼 정확한 피해액 파악과 대책 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 탈피 ‘지방분권 개헌’ 실현해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지방분권 관련 단체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어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관련 국회견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대회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강고한 중앙집권 체제의 개혁”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여야 정치권과 국회 개헌특위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 시스템의 혁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면서 “국회 개헌특위는 통치구조 개편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구제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수립하는 근본적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배분은 물론 자치 입법과 조직권이 원천봉쇄

돼 ‘무늬만 지방자치’인 시대에 살고 있다. 권력·자원·기회를 중앙정부가 꼭 움켜쥐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한 독선과 비효율을 깨지 못하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지방 재정 위기가 심각한데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그치고 있다. ‘8대 2 지방지치’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인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지방세 비율이 40%대에 달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재정뿐이 아니다. 현행 헌법에선 지방자치단체를 하급기관화하고 있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무력화돼 있다.

현 정국이 개헌의 최대 적기라는 점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중앙 권력체제 개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여야 대선 주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30년 만에 찾아온 국가 개조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기 고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우리 햇불되리라’



김 한 호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으로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저항해 일어난 3대 민족운동 중 하나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서 목숨을 건 독립운동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유례 없는 유일무이한 민족운동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와 나주를 통학하던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사이 충돌이나 야구 편파편정에 반발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3·1운동 이후 기만적인 문화정책과 세계대공황, 1920년대 이후 노동·농민·학생운동의 성장 등 국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발발한 항일 민족운동이다. 1953년부터 ‘학생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지만,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등 오랜 풍파를

거쳤다. 그러다 2006년 2월 비로소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 변경돼 오늘에 이른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1980년 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의항 호남정신을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 곳곳에서 시위, 동맹휴학 등 광주·전남 5개 학교와 전국 300여개 학교가 참가했다. 참가한 학생만 5만4000여명으로 당시 전국 학생 수의 절반이 넘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참여했던 학교의 동문들마저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당치게 됐다. 이에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2016년 5월 강삼석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당시 광주·전남 참여학교인 광주능업고(현 자연과학고), 광주사범학교(현 광주교육대), 광주서중일고(현 광주제일고), 전남여고 총동창회장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생독립운동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또 국가보훈처 인가를 받은 전국 규모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학교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역사찾기운동과 기념사업에 나서 국민에게 긍지를 심어주도록 할 것이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재 기념

사업회는 1994년 4월 2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발기 및 창립대회를 거쳐 임의단체로 시작, 2006년 광주시교육청 인가로 설립됐다. 그러나 운영비와 인건비 등 아무런 지원도 없어 관심을 가진 이들의 자원봉사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나마 전국 고교생 논술 및 광주·전남 초·중학생 글짓기 공모대회, 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 등 몇몇 공모사업에 응모해 진행하는 수준의 선양사업에 그치는 것도 그 이유다.

2014년 5월 ‘광주교육청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가 제정됐으나 그 뒤 행정절차나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진한 상태며, 이에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기구의 필요성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학생독립운동 관련 기관과 단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아이디어 제시와 견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어느 한 단체에 치우치거나 형식적이고 일회성의 기념사업은 지양해야한다. 또 매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기념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추념주관을 두고 다양한 형태

의 콘텐츠로 박제화되지 않은 기념행사를 진행, 많은 사람의 가슴에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남겨야 할 것이다.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생독립운동 거점 표지석 설치 및 복원 사업’과 ‘학생독립운동 참여학교 표지판 설치’, ‘이들의 학생독립운동가 선정’, ‘등록되지 않은 보훈대상자 발굴 및 신청 지원’, ‘참여학교 연대 합동기념식 개최’, ‘기념 공모사업’, ‘기념 예술창작물 제작 등 기념사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 체계적 학술연구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뜻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다. 분명, 적절한 수준의 예산과 체계적인 계획,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와 학술적 의의를 성립할 학자들도 필요하다. 이제 민주·인권의 기틀이 됐던 호남의 의항·예항 정신을 한 곳에 모아 지역의 상징적 경쟁력으로 삼아야 할 때다.

‘우리 햇불되리라’는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마음 저 아래서부터 우러나는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과 민주를 넘어 통일의 그날까지 당당히 앞서 나아가자는 결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신년음악회

매년 1월 1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빈 신년음악회’는 클래식 팬들이 새해가 되기 훨씬 전부터 기다리는 행사 중 하나다. 174년 역사의 빈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지난 1941년 처음 열기 시작한 ‘빈 신년음악회’는 매년 5000만 명이 지켜보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카라얀·아바도·안손스 등 거장들이 거처간 음악회의 올해 히로인은 구스타프 두다멜로 역대 최연소 지휘자였다.

베를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도 고정 팬들이 많다. 사이먼 래틀이 지휘봉을 잡은 올 해는 다닐 트리포노프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협연했다. CD와 DVD로 감상해야 했던 연주 실황은 2013년 메가박스가 생중계하면서부터 현장감도 느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메가박스 광주점에서 음악회가 중계됐는데 거의 만석을 기록했다.

최근 광주에서도 잇따라 신년음악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는 ‘근사한 새해 선물’이었다.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서곡,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라벨의 ‘볼레로’ 등 친숙한 레퍼토리는 관객들의 몰입을 도왔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외 FAX 222-4918) (FAX 222-4938)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